

##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RA **최윤희**  
02. 6098-6657  
yoonhee.choi@meritz.co.kr

###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 1. 전주 동향

##### 음식료

5월 첫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0.9%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64.3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5.6% WoW), 소맥(+0.7% WoW), 대두(-1.3% WoW), 원당(-2.0% WoW) 기록. 옥수수는 미국 불철 기상 악화로 옥수수 파종이 지연되며 생산량 증가폭이 축소될 가능성에 전주 대비 가격 상승. 또한 미국 에탄올 재고 수준이 전주 대비 감소한 점도 가격 강세 지지. 소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미국산 수입 관세에 대한 협력 의사를 표시함. 일본은 미국산 소맥, 소고기 및 기타 낙농제품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전주 대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맥의 풍부한 공급여건으로 상승폭 제한. 대두는 남미 지역의 공급 확대 부담은 지속되는 가운데 부진한 수출 실적 이어지며 전주 대비 가격 약세. 원당은 브라질 시탕수수의 원당 생산을 위한 투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가격 하락세. 인도 원당 생산 이슈 또한 가격 하락 요소

중국 라이신 제조업체 원재료 가격 부담이 가중되며 제조업체 생산 마진 압박 중, 가동을 상승 위해선 수출이 핵심인 상황. 국내 수요가 매우 부진한 상태. 3월 수출 전월 대비 50% 증가하며 호조. 메티오닌은 4/10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착수되며 가격 10% 이상 급등. 위 3개국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77%를 차지해 시장에 영향이 작지 않음. 단기간 중국 시장 메티오닌 공급은 타이트해지며 가격 강세 예상.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수급에 대한 영향은 미약해지며 안정화 전망. 외국 매체에 따르면 Novus가 메티오닌 공급 확장 계획을 마무리. 2020년까지 기존 캐파 320,000톤/년 → 440,000톤/년으로 확대 결정. 쓰레오닌은 공급이 plum blossom, Yipin, Qifeng에 집중된 상황, 최근 미래 선수우 반영으로 상승했던 가격은 다시 하락 안정화된 추세, 3월 수출 물량은 21% 증가. 트립토판 3월 수출은 전월 대비 53% 증가, 수입은 63% 감소된 상황. 향후 생산 캐파는 증가 예상되며 가격은 약세 안정화 전망

국내 이벤트는 1. (CJ제일제당) 햇반갑판 출시 4년만에 누적 매출 3,000억원 2. (오리온) 스낵 '섬섬옥수수'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개 돌파 3. (전자담배) 5/24일 CSV 전자담배 '졸' 판매 시작 4. (하이트진로) 5/1일부터 참이슬 가격 편의점 기준 1,660원→1,800원으로 8.4% 인상 5. (하이트진로) 맥주 신제품 '테라' 출시 한 달만에 3,200만병 판매

#### 2. 금주 전망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9년 음식료 영업이익 전년비 13.3 성장하며 KOSPI 영업이익 전년비 18.1 감소 대비 우수한 상대 성과 예상. 음식료 1Q19 실적은 종목별 혼조세 예상**

1Q19 실적흐름 종목별로 상이 대항주는 KTNG, 오리온, CJ제일제당 순서로 선호, KTNG는 수출 증가 전환이 추가 모멘텀을 작용할 전망이며, 국내 담배는 점유율 확대 지속/5-6월 출시 예정인 줄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오리온은 1-2월 실적 예상치 하회로 1분기 컨센서스 하회 예상, CJ제일제당은 가공식품 수익성, 해외바이오 판가 부진으로 1분기 컨센서스 하회 예상. 쉬왈스 인수 지연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감 지속. 오리온, CJ제일제당 추가 상승 모멘텀은 하반기로 지연. 중형주는 CJ프레시웨이,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매일유업, 대상 선호.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유통 가격 인상효과 지속, 급식 신규수주 효과로 19년 연간 매출액/영업이익 성장 흐름 지속. 식재유통 가격 인상으로 구조조적인 헤게모니 강화 판단. 1분기 실적은 전년수준 유지가 예상되지만 급식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변화 효과 2-4분기 영업이익의 증가 기대감 확대될 전망. 하이트진로 신제품 테라 첫 달 판매량 100만 상자 예상. 필라이트 첫 달 16만 상자, 하이트 펄 370만 상자 대비 우수한 초기 성과.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비자 반응 및 관심도 지속 확대 중. 4월중 발표될 주세개편안과 하반기 기대되는 가격인상 가능성은 추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판단. 삼양식품은 중국 오프라인 채널 주요도시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불탑볶음면 입점 양호한 상황. 3-4월 유배이 수출 물량 본격 증가 예상. 매일유업 분유 수출 수주 두 자리 수 지속 및 19년은 국내 조제분유 매출 감소분을 수출 증가로 상쇄 예상. 대상은 베스트코 흡수 합병 효과와 국내 판권비 관리 효과로 실적 성장흐름 이어질 전망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관심종목

##### 삼양식품 (003230)

수출 라면은 중국의 전년 낮은 베이스 효과와 동남아 수출 고성장세 지속하며 양호한 성장 흐름 예상. 반면 국내 라면 1Q18 까르보불닭 제품의 판매 호조로 높은 기저 부담 존재. 1Q19 실적의 20-30억원 역성장 요인. 수출 라면 19.3월 이후 매출 호조세로 전환된 점, 국내 소스류 신제품 출시를 통한 실적 회복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 1Q19 수출 라면 부문은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 예상. 1) 중국 라면 수출의 전년 낮은 베이스 효과, 2) 동남아 수출 15-20% 성장세 지속, 3) 일회성 비용 등의 특별한 비용 발생 이슈 없다는 점이 근거. 국내라면은 1Q19 전년 동기 높은 기저 부담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존재. 1Q19 까르보불닭 매출 80억원(vs. 1Q18 매출 200억원) 예상되는 점이 주요. 전년 동기 까르보불닭의 이례적인 판매 호조로 4+1, 5+1 등의 판촉

##### 동원산업 (006040)

1Q19 수산부문 실적은 전년 대비 우호적인 어획량 달성하며(2월 어획량 역대 최고치) 부진한 어가 환경 만회 가능 예상. 19.4월 어가 환경도 긍정적 흐름 지속. 유통부문은 스타키스트의 소송 이슈 외에 특이 사항 없다고 판단. 월마트와의 민사 소송 합의 이후 미국 메이저 유통업체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 추세. 물류는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전년 대비 긍정적 실적 흐름 예상. 2Q19 이후 동원냉장 합병과 저온 보관 창고 업체 BDC 인수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5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5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최윤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